

2016.03.15

## 세인관세법인, 해외 세관 품목분류 유권해석 프로젝트 진행

최근 FTA확대에 따른 **협정당사국간 품목분류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입 상대국 품목분류 정보가 부족하여 **부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세인관세법인**은 국내 최대 자동차 완성 업체 A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에서 품목분류 이견 가능성이 높은 품목 수백개를 선정하여 약 일년에 걸친 미국 관세청과 긴 협의 끝에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수의 품목분류 결과(US Advance Ruling)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 가이드북(가칭)”**을 완성했습니다.

**세인관세법인**은 금번 미국 관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유권해석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세관에 대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세인관세법인 FTA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02-6011-3091, 담당자 : 김대권관세사)

## 세인관세법인 “해외 세관 품목분류 유권해석”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사입력

세인관세법인(대표 : 박병호)은 지난해 미국 관세청을 상대로 약 일년간 진행한 품목분류 유권해석 프로젝트를 마치고 최근 “미국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 가이드북(가칭)”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FTA확대에 따른 협정당사국간 품목분류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입 상대국 품목분류 정보가 부족하여 부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우리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세인관세법인은 국내 최대 자동차 완성 업체 A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에서 품목분류 이견 가능성이 높은 품목 수백개를 선정하여 약 일년에 걸친 미국 관세청과 긴 협의 끝에 미국 측으로부터 품목분류 결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수십명의 품목분류 전문가와 상대하며 미국 관세청 품목분류 조직, 업무방식, 심사포인트를 학습하였으며 해당 과정을 가이드북에 담았다. 세인관세법인 관계자는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관세청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준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세인관세법인은 금번 미국 관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유권해석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 관세청에 질의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인관세법인 FTA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